

이상기후·탄소중립 등 강화된 정책 변화 반영

환경영향평가 작성법 어떻게 바뀌나
 환경위해인자 현황조사도 필요
 조사·평가·보전대책 담아야
 환경부 개편안 내달부터 시행

광주·전남의 사업자들이 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이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새롭게 바뀐다.

이는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예측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기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새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평가서 작성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의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한다.

새로운 평가서 작성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을 대폭 개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작성을 하는 사업자 등이 작성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경 요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변화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 기후에 대한 현황 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토록했다.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현황조사,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공원·수환경 등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등 토지이용계획의 생태적 건전성을 강

화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적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 수단·방법 등의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설정·분석 방법 등 구체화하도록 하고,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의 평가준비서의 내용을 구체화해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게 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과 개발기본계획(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분리해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꾸렸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는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편된 평가서 작성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면서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이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제주 환경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송재식)는 15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ESG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지역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날 협약은 지역경제의 포용적 경제회복과 친환경 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각종 행사시 전통시장 우선구매 ▲전통시장 내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양기관 공동 사회공헌프로그램 추진 등 지역경제와 환경개선 활동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재식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통시장의 환경 친화적 변화와 지역경제의 포용적 경제회복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리산 산수유 열매 효모로 전통주 만든다 자생 효모 2균주 찾아내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효모로 만든 전통주가 나온다.

15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국제정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연구를 거쳐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자생 효모 6균주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자생 효모 2균주는 인공감미료 첨가 없이도 천연 단맛을 내며, 이 2균주를 적용한 전복 납원시의 전통주(약주 및 탁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두 균주가 초기 발효속도가 빠르고, 발효 후 단맛과 감칠맛 등 풍미가 탁월하다고 보고, 올 2월 중순 특허를 출원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야생식물 꽃이나 열매 등으로부터 효모 1700여 균주를 분리·배양해 보존하면서 주류면허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전통주(약주·탁주·증류주), 과실주, 맥주 등 주종별 발효에 적합한 효모 선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약주 발효에 최적인 효모 2균주, 탁주용 2균주, 증류주용 1균주, 맥주용 1균주 등 6 균주를 선정했다.

15~17%의 알코올 함량을 유지한 채 발효가 완료돼 원료 전분에서 나온 당이 그대로 남아있어 천연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남구·동구 손잡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동 추진



지난 14일 임택 동구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김병내 남구청장(여섯번째)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활성화 기반 구축 업무협약
 콘텐츠 발굴·정보 공유 등 협력

광주 남구와 동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15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남구청 7층 구청장실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임택 동구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시설·강사 인력 공동 이용,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정보 공유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남구와 동구는 문화예술 부문 교류를 위해 청각 장애인 뮤지컬 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예술가를 동시에 양성해 작품집 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또 장애인들이 남구와 동구 관내 명소를 찾아다니며 동영상을 통해 동네를 알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이유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 미흡으로 이들의 학습 수요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식의

소멸주기가 짧아지면서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리딩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무등산 일부 탐방로 통제

무등산 일부 탐방로가 산불방지를 위해 통제된다.

15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기간(2월 1일~5월 15일) 중 자연경관과 야생·식물의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통제구간은 총 5개구간(8.1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 구간은 ▲ 소태제 - 마집봉갈림길(1.0km) ▲ 풍암주차장 - 광일목장(2.1km) ▲ 선주암갈림길 - 서원봉갈림길(0.8km) ▲ 서석대 - 천왕봉 - 군부대입구(1.1km) ▲ 광일목장입구 - 신선대갈림길(3.1km) 이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을 발견 시에는 즉시 국립공원사무소로 신고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